

목회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John Calvin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견해와 역사적 분류

2006년 12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이창오

목회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John Calvin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견해와 역사적 분류

2006년 12월

지도교수 김 영 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이 창 오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6년 12월 일

주심 이 은선 Seon

부심 이 은근 Eun Geun

위원 김 영규 Young Kyu Kim

위원 장 화 선 H. S. Chang

위원 \_\_\_\_\_

## I. 서론

- A. 문제제기
- B. 연구방법

## II. 본론

### A. 역사적 논쟁

- 1. Augustus 와 Pelagius 의지에 대한 논쟁
- 2. Luther와 Erasmus의 논쟁
  - 1) 논쟁의 진행상황
  - 2) 논쟁의 내용

### B. John Calvin의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

- 1. 타락 전 인간의 자유의지
  - 1)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
  - 2)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
  - 3) 타락 전 사건에서 영혼과 자유의지 관계
  - 4) 타락 전 사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정의
- 2. 타락한 자유의지
  - 1) 타락의 결과
  - 2) 타락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
  - 3) 전적 무능력과 자유의지
  - 4) John Calvin의 견해에 대한 반론
- 3. 구속사역에서의 인간의 의지
  - 1) 믿음에 의한 중생
  - 2) John Calvin이 바라본 중생과 자유의지의 관계
  - 3) John Calvin의 중생 개념에 대한 반론
  - 4) 믿음에 의한 칭의
  - 5) 중생과 칭의 관계에서 자유의지
- 4.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 1) 작정과 진행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 2)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 III 결론

# I,서론

## 1. 문제제기

성경은 인간에 대한 견해를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타락하기 전의 인류 두 번째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얻은 인류를 제시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되며 구원을 얻은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관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그 그 깨달음을 통해 미망 속에서 모든 번뇌와 고통, 윤회, 전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구원의 비밀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안조차도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분별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한다.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창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알지 못하는 곳 즉 그에게 주시는 기업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소망한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해석을 내릴 때 보통 2가지의 이야기를 한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장하는 쪽과 다른 쪽은 자신의 의지로 믿었다고 하는 쪽이다. 전자는 John Calvin을 따르는 곳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며 후자는 Alminius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해석을 한다. Alminius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해석에 대한 객관성을 말할 때 보통 King Hezekiah을 말한다. King Hezekiah가 통치하던 어느 날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곧 자신이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이러한 선고를 받은 왕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그의 기도 내용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했는지 또 그 선한 일에 근거하여 자신을 치료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King Hezekiah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한다. 이에 대해 John

Calvin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Samul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King Saul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또 자신을 위해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Saul을 폐위시키려고 하자 Samul이 King Sul을 위해 기도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몰차게 다시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을 한다. 그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지 모른다. 매우 이 문제는 난처한 부분이다. 성경은 이처럼 한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누구도 변경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어느 구절에서는 어느 때에는 인간의 의지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변경 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과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내리는가?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다른 여러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으로 푸는 것보다 John Calvin의 견해를 가지고 풀고자 한다. 그가 생각하는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Aminius자들이 말하는 의지의 부분도 자연히 풀릴 것이다.

## 2. 연구하는 방법

본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내가 연구를 할 John Calvin의 자유의지가 역사 안에서 어느 분류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신학이 자료나 주제는 그 앞선 시대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무리 한 것이다. 어느 신학자들도 그 자신의 독창성을 가지고 만든 것은 거의 없다. 다 역사 안에서 먼저 난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John Calvin의 신학에 대한 평가에서 B.B Warfield는 Augustin의 교회학의 부흥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John Calvin이 만든 신학은 그 자신 스스로 만든 신학사상은 없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도 이미 앞선 자의 영향을 통해 형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앞선 사람을 연구를 해야 우리는 그의 사상을 더욱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먼저 연구할 것이다. 이 역사적 맥락에서 교보들보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Augustin과 Pelagius와의 논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어난 논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John Calvin의 앞 선 시대 사람인 Luther와 Erasmus와의 논쟁을 연구를 한다. 이 논쟁은 종교 개혁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였다.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논쟁인 것이다. Erasmus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그리고 Luther는 개혁 진영에서 대표로 논쟁을 하였다. 그리고 이 논쟁은 바로 Luther의 다음 세대인 John Calvin에게 영향을 끼친 논쟁이기 때문에 이 논쟁에 대해서 살펴 필요는 있다. 이러한 연구 후에 이 논문의 주제인 John Calvin이 생각한 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다. 단 이 논문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 인물이 John Calvin전 시대 사람에 대해서 짧게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연구 방법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자 한다. 타락전의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연구하고자 한다. 창조 사건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지를 받았는지 그 의지에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그것이 어떻게 의지를 변화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의지는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의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 의지가 회복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의지를 회복하는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는 세 부분을 나누어 의지를 연구하여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세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지금 선택 받은 사람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선이 나올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작정과 그 안에서 행하는 인간의 의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하므로

John Calvin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역사적으로 어느 부류에 속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II. 본론

### 1. 역사적 논쟁

이 부분에서는 짧은 요약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하는 것은 John Calvin이기 때문이다. 단 이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것은 John Calvin의 자유의지가 역사적으로 어느 맥락인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다.

#### 1) Augustin과 Pelagius 의지에 대한 논쟁

이 주제는 신학과 철학의 역사를 아주 뜨겁게 만든 주제 중 하나 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과연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주제를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세대에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였다.

런던 수도사인 Pelagius는 A,D 400년경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로마 사람들이 운명론 빠진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실망을 많이 느낀 사람이다. 그는 특히 감독 하나가 Augustin의 [고백론] 가운데 기도문을 인용하는 것을 듣고 경악하였다. “ 당신께서 자제를 명령 하옵소서” 그는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훼손하고 값싼 은혜를 설교하는 것처럼 들었다.<sup>1)</sup> 이러한 그에게 있어 Augustin이 주장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것은 마니교의 교리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각 개인은 아담으로부터 악이나 악에로의 성향을 유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악에 대한 성향

---

1) Henry Chadwick [초대 교회사] 서영일,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1983)P284



을 없는 의지를 갖고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지는 않으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중하게 여기신다고 하였다.<sup>2)</sup>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상태의 성장은 인간의 공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sup>3)</sup> 이에 대해 Augustin은 은총이란 자유의지 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그는 죄는 아담 자신의 행동에 의해 모든 세대의 영혼에 죄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이 죄를 짓을 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같이 죄를 짓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은 상실하였고 인류는 오로지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완전한 의지를 회복시켰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실 때에만 선을 택하고 행하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 2) Luther와 Erasmus의 논쟁

### (1) 논쟁의 진행 상황

Erasmus는 탁월한 학문적 통해 기독교 신앙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다. 그는 고전과 기독교 고대 정신을 되살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죄와 은혜의 교리들을 깊이 깨닫는 통찰력이 부족했다.<sup>5)</sup> 그러나 Luther는 자신이 수도원에서 겪은 신앙적 체험은 그에게 Sola gratis의 기본 사상을 잡게 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본 사상으로 종교 개혁을 한 Luther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라는

2) 박해경 [기독교 교리 신학사] 이래서원, 서울(2000)P119

3) Miliard Erickson [The Doctrine of Salvation] 김광열,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 (1992) P120

4) 박해경 [기독교 교리 신학사] 이래서원 서울(2000)P119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때시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은총을 생각으로나 언어로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파문한다. 이 은총을 파기하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에 맞는 영벌을 받게 하라” - De Grat

5)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7] 박종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 (2004)p327

명령과 1518년 4월 하이델베르그으로 소환되었지만 그 총회에서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비판한다.<sup>6)</sup> 그러나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Erasmus가 King of England Henry로부터 강압적 권유와 Luther가 Oikopadius에게 준 편지의 내용에서 Erasmus 향해 인신공격을 한 사건 때문이다.<sup>7)</sup> 그래서 Erasmus는 1524년 De libitrio[자유지의론]를 통해 Luther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 (2) 논쟁의 내용.

Erasmus는 Luther의 세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 첫째는 인간의 의지가 전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증명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처럼 노예의지를 설교로나 글로서 공포하게 되면 인간은 더욱 윤리적으로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악을 더욱 자행하게 된다. 세 번째 Luther는 'sola gratia' 'sola fide'에 입각하여 노예의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회적 주장은 마땅하지 않다.<sup>8)</sup> 이에 대해 Luther는 인간에게 의지 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의지 능력이 은총 없이는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노예상태에 있음을 주장한다.<sup>9)</sup>

그는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의 의지란 나귀와 같아서 그것에 올라탄 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데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서 올라탄 자가 마귀이고 은혜의 상태에서 올라탄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결정에 대한 선택권은 없고 오직 마귀와 하나님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이에 대해 Erasmus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 Luther를 결정론자로까지 보았다. Erasmus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6) 오덕교[종교 개혁사]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수원(2006)P50

7) 이형기[종교 개혁사상]장로교 출판부, 서울(1997)P234

"오히려 이 엄청난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통 정도의 자질을 인정하며 존경합니다. ~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당신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할 일이나 해야지 우리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당신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 천재 충분히 지녔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종교 개혁자가 될 자질과 용기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이형기[종교 개혁사상]장로교 출판부, 서울(1997)P234

9) ibid 서울(1997)P234

10)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7] 일산(2004)p344

필자는 Luther의 의지에 대한 견해에 다음가 같이 피력한다. "그것은 의지를 나귀로 비유하여 마귀가 올라탄 것을 인간 본성이 타락한 상태라고 비유한 것인데 이것은 자치하면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을 마귀에게 전가하고 인간은 아무런 책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즉 인간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협력을 하는 것이지 Luther처럼 인간을 수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것이 그의 견해이다. 자유의지는 인간 스스로 누구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멀어질 수도 있다.<sup>11)</sup> 그러나 Luther에게는 인간은 죄를 지을 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필연성 아래 놓여 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이다. 는 것이 Luther의 견해이다. 그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진다. “인간의 의지는 회심과 칭의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성령께서는 인간 의지에 대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되 특히 사도 바울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 안에서 일하신 뒤에는 그들의 의지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sup>12)</sup> 인간은 그에게 허용된 일에서만 자유하며 구원의 영역 밖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Luther의 인간 의지의 특징은 예정의 기본으로 출발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John Calvin의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

우리는 이제 까지 Augustin과 Pelagius의 논쟁을 살펴보고 더욱 나아가 Luther와 Erasmus와의 자유의지의 논쟁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주제가 형성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이러한 역사적 형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John Calvin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과연 John Calvin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무엇이며 John Calvin의 견해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

### 1)타락 전 인간의 자유의지

John Calvin은 기독교 강요 1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1~5장까지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교한다. John Calvin은 이 항목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며 이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

11) Erasmus de libero lb 10(P36) "liberum arbitium hoc looc sentimus vim humanae voluntatis que se possit homo applicare ad ea quae aeternam salutem aut ab iisdem avertere"

12) Luther [탁상담화 - 자유의지] 이길상, 크리스찬 다이제스, 일산(2005)P189

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내용이 6~10장까지 내용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John Calvin은 11 ~12장에서 John Calvin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종교가 언제나 허위와 오류를 말미암아 파괴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은 일치된 사실이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한다. “그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애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며 참된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sup>14)</sup> 이다 이러한 대비 구조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신자에게 경건의 삶의 목적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구조로 간 John Calvin의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서 창조 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질문이 해답은 소제목 8장이다. 그는 소제목 8장에서 ‘자유선택과 아담의 책이라는’ 항목에서 그는 두 가지를 서술한다. 하나는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담의 타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에게 있다. 그럼 의지가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더욱 더 구체하기 위해서 먼저 John Calvin은 의지가 어디서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항목까지 이어간다. 하나님의 형상 요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 속에 어떠한 작용하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John Calvin은 보여주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이 생리적 악을 지적하는 중 그것을 인간 본성을 만드신 창조주께 책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sup>15)</sup> “부패의 책임을 본성에 돌림으로 비록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John Calvin의 주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13) John Calvin[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한철하, 생명의 말씀사, 서울 (2006)P196

14) ibid,1,1559 P172

15) ibid,1,1559 P287

## (1)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

Karl Barth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 되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면의 가능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남자와 여자에 대해 ‘나’ 일 수 있으며 여자 역시 남자를 향해 ‘너’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 너와의 대면은 남자와 여자사이의 관계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그는 이러한 대면적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 시며 우리와 나-너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동료인간을 향 하여 이와 동일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sup>16)</sup>

이에 비해 John Calvin은 Karl Barth 보다 더 넓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 John Calvin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서술한다. “우리를 동물과 분리시키고 인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준다는 사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동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에서까지 확대된다.<sup>17)</sup> 이렇게 창조를 받은 인류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더 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인류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더 큰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결합시켜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sup>18)</sup> 이러한 특권을 인류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형상의 무엇이며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에 대해 John Calvin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다.”<sup>19)</sup>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 ~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영혼의 올바르게 완전무결함이기 때문에 사람은

---

16)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1991)P88인용

1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 서울(2006) P293

18) Ibid, 1, 1559. P290

19) Ibid, 1, 1559. P294

하나님의 지혜, 의, 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sup>20)</sup>

결국 John Calvin은 [강요]와 [주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결론을 짓기를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성을 포함하고 있다.<sup>21)</sup> 인류는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이며 또한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완전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아담은 창조 시에는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우하였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으며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sup>22)</sup>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John Calvin은 마치 인간이 만물의 상속자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하였지만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부분을 인정한다.<sup>23)</sup> 이처럼 John Calvin은 Karl Bath처럼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John Calvin은 그것보다 더 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 및 통치에 관한 것 그리고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새 생명을.”<sup>24)</sup>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2) 타락 전 사건에서 영혼과 자유의지의 관련

John Calvin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sup>25)</sup> 여기서 John Calvin은 영

---

20) John Calvin [2.Commetary on Colossians 3:10]

21)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 s image]류호준 ,기독교문서선교회, 서울 (1991)P77

22) John Calvin[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 서울(2006) P293

23) John Calvin은 강요 15장4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문화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주석에서는 창세기1장26절서도 반대를 하지만 문화명령과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창세기1장26절에서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2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서울(2006) P294

25) Ibid,1,1559, P288

혼을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누고 있다. 첫 째는 영혼의 불멸성 두 번째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세 번째는 이것은 인간 두 부분 가운데서 영혼이 더 고상한 부분이라고 말한다.<sup>26)</sup> 이러한 John Calvin의 영혼에 대한 이해는 Platon의 견해와 동일한 면들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John Calvin의 견해와 Platon의 견해는 결코 동일하지 않는다. 먼저 Platon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신과의 합일로 보았다. 그는 육신이 영혼을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이 영혼은 언젠가 육신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귀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사상 안에는 육신에 대한 가치를 현저하게 낮은 가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초대 교회에서 영지주의 사상의 근원이 된다. 이들과 달리 John Calvin은 육체의 가치를 높고 있다. 그는 영혼의 기능 중에서 육체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sup>27)</sup> 이 육과 영혼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귀하고 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육체의 부활도 원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영과 육체의 관계의 다른 생각으로 인해 John Calvin과 Platon의 영혼관이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생각은 영혼의 불멸성만이 동일한 것이다.

그럼 John Calvin은 영혼의 존재의 증명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는가? 먼저 그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선악을 가려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응하는데 바로 이 양심은 불멸의 영이 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sup>29)</sup> John Calvin은 육체와 영혼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활하기 전에 있는 육체는 영적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두려움은

26) 신복윤[John Calvin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서울(1994)P176

27) Ibid 서울(1994)P1180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이요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다. 동시에 죄가 없었다라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없었을 것이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28) John Calvin [Commetary on Matthew 22:22]

“육체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도 영혼의 불명성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그들의 진술이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은 부활의 소망에 달려 있는 것이며 따라서 영혼의 육체와 분리될 때 부활을 기다린다. 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부활을 불신하는 자는 역시 영혼의 불멸성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29) John Calvin[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P288

영혼이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 영혼의 존재에 대한 증명할 때 John Calvin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한다. “육체는 물질적인 것 이상을 넘지 못하지만 영혼은 그것을 초월하므로 인간 마음에 심겨진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 “영혼의 지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해하며 옳은 것과 의로운 것을 파악한다.”<sup>30)</sup> 이러한 영혼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서 John Calvin은 영혼을 우리의 지성의 좌소로 보고 있다. 이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육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반영된다.

하나님 형상이 영혼 안에서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다. 이 영혼의 주된 활동은 이를 갈망하는 것이다.”<sup>31)</sup> 여기서 더 자세히 인간의 의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John Calvin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영혼 안에도 두 가지의 기능을 나누고 있다. 하나는 오성과 의지라는 것이다.<sup>32)</sup> Aristoteres는 오성 안에 이성과 욕구를 말할 하며 이에 비해 John Calvin은 오성 안에는 지성과 욕구 대신 감각을 말한다. 이 감각은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보았다.<sup>33)</sup> 이 오성은 John Calvin은 영혼에 비유하였다. “의지는 오성의 명령을 항상 유의하며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 오성의 판단을 받을 만한 준비 사물을 구별하는데 있으며 의자가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택하고 따르며 또한 오성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마

30) Ibid ,1,1559P288

31) Ibid P298~299

32) 중세 철학에서 오성은 신의 직관적 지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형을 본뜬 것이라 하여 저차적인 감성적 능력과의 중간에 인정된 위치가 주어졌지만 , 중세 철학의 해체와 더불어 보다 높은 기반을 잃어버리고 새삼스럽게 그 확고한 기초를 요구하여 비로서 시대의 표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제는 J로크의 [인간오성론]에서 그 전형적인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서는 인간적 인식을 중세이래의 신학적 형이상 혹은 존재론의 틀을 해체하고 소위 오성과 감성만의 상호교섭으로부터 바꾸어 말하면 참으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문제 설정으로부터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3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서울(2006)P288



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 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지를 결합을 시키심으로 의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4)</sup>"

### (3) 창조 사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정의

우리는 창조 사건에서 인간 자유의지가 하나의 단독적인 개체가 아니다.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이와 같은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성과 지성 사려 분별 판단은 지상 생활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 여기에 선택이 추가되어 욕구를 조정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리하여 의지로 하여금 이성의 지도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영생에 도달 할 수 있다. ~ 그는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 왔고 자신의 축복을 부패시키기 전에는 그의 마음과 의지는 최고의 공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유기적 부분들은 순종 할수 있도록 조직되었다.<sup>35)</sup>

John Calvin은 아담이 원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타락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술한다.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 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던 것이다."<sup>36)</sup> 그의 의지는 완전한 의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담은 인내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타락한 것이라고 John Calvin은 말한다. 이러한 John Calvin의 견해에 납득이 되지 못하여 반박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류를 말할 것이다. 이에 대해 John Calvin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으로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지기를 거부하였다. "아담은 자신의 능

---

34) Ibid,1,1559 P302

35) Ibid,1,1559 P301

36) Ibid,1,1559 P302

력을 행사하였다더라면 그는 인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의지를 행사가 있으려면 인내가 따르기 때문이다.”<sup>37)</sup> 라는 Augustin의 글을 인용하므로 비록 그가 인내를 받지 않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인간에게 태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John Calvin 은 확신하였다. John Calvin은 인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Herman Bavink의 견해에 의해 찾아야 할 것이다. Herman Bavink은 아담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아담의 행로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던 자가 아니라 행로의 초기에 서있는 자였다. 그의 상태는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없었다. ~ 죄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sup>38)</sup> 그리고 계속해서 Herman Bavink은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소위 하나님의 한계선 Herman Bavink - 이 용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형상 안에 의지가 있다. -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수 있는 잠재성은 지녔으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살았다.”<sup>39)</sup> 즉 그는 가변적인 인간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Herman Bavink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John Calvin이 말하려고 하는 인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그가 이 Augustin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한 인내는 Herman Bavink가 말한 한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John Calvin은 더 이상 호기심을 갖지 않기 위해 “은밀한 계획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sup>40)</sup> 말한다. John Calvin은 비록 아담은 인내를 받지 않았지만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것을 이야기 한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가지고 영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지를 받은 것이 아담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John Calvin 견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한

37) Ibid,1,1559 P303~304

38)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 s image] 류호준 , 기독교문서선교회, 서울(1991)P148

39) Ibid 서울(1991)P148

4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서울(2006)P303

다.41) 그러므로 창조 사건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창조를 받았다. 그러나 창조 사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아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2의 존재는 1존재로부터 나오고 제 1의 존재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고 그 자유는 선악이 강요되지도 않으며 또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무죄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하므로 본성적으로 그들이 연유한 하나님을 지향하기 할 수 있고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생명 유지해준다.42) 또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43)

## 2. 타락한 자유의지

### 1). 타락의 결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대한 열의와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John Calvin “인류의 고귀성이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으로 인하여 매물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거룩하고 정직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정된 목표인 복된 영생을 향하여 매진해야 한다.”44)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간의 모습은 자신을 현찰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낙심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45) 그러면 왜 창조 시에 인간의 고귀함이 현재는 없어지고 만 것인가? 이런 질문에 John Calvin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다. “아담이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이 되었던 것과

41) 하이델베르크 제3주일

문: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와 같이 사악하고 못되게 창조하셨는가?

답: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다. 즉 그의 의와 거룩함에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옳게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옳게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살면서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42) Wiliam Amen [신학의 정수] 서원모,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일산(2000)P142

4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1절

44)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 1559,].서울(2006) P364.

45) Ibid.,2,,1559,P366

같이 창조주에게 멀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sup>46)</sup>“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에 위배 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sup>47)</sup> 여기서 John Calvin 하나님과 인류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아담의 반역 즉 아담의 죄로 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sup>48)</sup> 이러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부패하였다고 calvin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창조 시에 인간이 가졌던 선한 본성을 모든 인간들이 잃어 버렸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본성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에 따라서 판단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선이라고는 흔적조차 볼 수가 없다.”<sup>49)</sup>

이러한 John calvin 견해에 대해 Pelagius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것이다. “아담의 타락은 단지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할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으로 Psalms 51:1 구절이 있다.<sup>50)</sup> John Calvin은 이러한 아담의 타락과 그의 후손에 대한 관계를 더욱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1.Corinthians 15:22절과 Romans 8:10절의 글을 인용 한다.<sup>51)</sup> 이 두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와 아무런 상관 없이 그의 후손에게 감염 시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52)</sup> 이러한 John Calvin 주장에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 5장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2) 타락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

우리는 앞부분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과 타락이 모든 사람에게 준 영향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퍼진 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John Calvin은 이 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46) Ibid,2,1559,P36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2절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47)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 1559,].서울(2006) P369

48) Ibid,2,1559,P369

49)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 1559,] 서울(2006)P 303

50) Psalms 51:6 “For the director of music. A psalm of David. When the prophet Nathan came to him after David had committed adultery with Bathsheba.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according to your great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51) 1.Corinthians 15:22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Romans 8:10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52)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 1559,] 서울(2006)P471

2 Corinthians 3:5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sup>53)</sup>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힌다. 그는 의지나 감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바르게 행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담의 의의 원천을 버린 후에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하였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지성이 죄악으로 점령당했다. 즉 지성의 눈이 멀고 심정이 썩어 버렸다.”<sup>54)</sup>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이제는 영적 이해력이 없다는 것이다.”<sup>55)</sup> 결국 타락한 인류의 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힌다. 그는 의지나 감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바르게 행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망가진 것과 동시에 영혼의 부패한 것을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영혼은 육체에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고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된 것과 하나님이 남기게 된 것은 주신 은총의 자리에는 의의 원천을 버린 후에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하였고 하나님 형상과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지성이 죄악으로 점령당했다.<sup>56)</sup>

### (1) 노예의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욱 더 선을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sup>57)</sup>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Frederick Tennant 같은 경우 죄란 단지 동물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능과 행동 양식을 인간이 도덕적 지각을 얻은 후에도 지속하는 것이다. 인간이 비록 타락하지만 인간이 무조건 악으로 향하여 가는 것은 지나친 견해일 것이다. Paul Tillich는 죄를 모든 존재의 근거와 다른 존재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실존적 소외와 연결시켰다.<sup>58)</sup>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John Calvin 필연과 강제라는 단어로 저 어린이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59)</sup>” 즉 아담이 죄를 짓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강제로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담 자신의 욕구가 선동이 되어서 죄를 지은 것이고

53) 2 Corinthians 5:3 “because when we are clothed, we will not be found naked”

54)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 1559,] 서울(2006) P377

55) John Calvin [Commetary on John 1:5]

56)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 1559,] 서울(2006) P377

57)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 1559,] 서울(2006)P430

58) Miliard Erickson[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나용화, 황규일,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 (2001)P 329

59) Ibid,2,1559,P432

이러한 죄를 인해서 사람은 죄의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듣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반대로 사탄의 간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필연적으로 항상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다.”<sup>60)</sup> 그러므로 인류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의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타락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이 근본적인 부패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해서 싫증이 나며 무능해지고 반발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지게 되었다. 이 근원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 범 죄가 생긴다.”<sup>61)</sup> 또한 John Calvin 자신의 주석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다. John Calvin “그는 주님으로부터 타락함으로 해서 그 자신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부패시키고 더럽히고 파멸시켰다. 즉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음으로 해서 그가 생산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씨를 그 자신을 닮은 것으로 뿐이었다.”<sup>62)</sup> Augustine도 John Calvin과 같은 말을 한다. “부자유한 의지는 욕망이라는 수갑에 채워져 정복을 당한 상태이고 인간의 본성까지 정복을 당한 것이다.”<sup>63)</sup>

이러한 John Calvin 주장에 대해서 상식적 근거를 통해 죄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죄가 아니며 만일 자원적인 것이라면 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Pelagius와 Erasmus가 동일하게 사용하였던 무기인데 이러한 저들의 피변에 대해서 John Calvin은 그들의 추리에 대해서 부정하며 그들의 추리를 다음의 내용으로 반박을 한다. 먼저 John Calvin은 죄를 짓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죄의 동기는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성의 부패에서 온다.”<sup>64)</sup> John Calvin.은 저들의 공격을 대해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공격을 막고 원죄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결박한 쇠사슬은 처음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를 배반한데서 생겼다.”<sup>65)</sup> 아담의 죄를 통해서

60) Ibid,1,1559,P451

Miliard Erickson[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서울 (2001)P 329

“죄는 죄를 짓는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죄로 말미암아 결과 중의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힘이다. 죄는 하나의 습관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중독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예를 들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하나님께 그에게 그의 동생이 어디있냐고 물으셨을 때 하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61) Romans 3장 10절~15절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All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Their throats are open graves; their tongues practice deceit." "The poison of vipers is on their lips." "Their mouths are full of cursing and bitterness."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62) John Calvin [Commetary on Genesis 2:17]

63)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1 1559,] 서울(2006)P451

64) Ibid,2,1559, P461

65) Ibid,2,1559, P461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며 또한 우리가 죄의 정죄를 받고 그들의 의지는 선을 버리지만 여전히 의지인 것이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신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진 인간은 육신과 관련된 일종의 파멸의 존재하며 영혼도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John Calvin은 Augustin의 글을 인용하면서 죄에 대해 노예가 된 의지를 설명한다. “인간들은 그들이 아담에게서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서 죄악 된 사상만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은 죄악 된 세상을 찬 사상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인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죄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부자유한 의지는 욕망이라는 수감에 채워져 정복을 당한 상태이고 인간의 본성까지 정복당한 것이다.”<sup>66)</sup>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듣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반대로 사탄의 간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필연적 항상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다.”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만일 외부에서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강제로 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숙명론에 빠지는 오류가 생긴다. 오히려 죄의 근원을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즉 죄의 토대가 된다.”<sup>67)</sup> 그러므로 인간이 무고하게 아담의 범과에 대한 책임을 더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sup>68)</sup>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John Calvin은 죄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의 의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악의 뿌리가 우리의 의지에서 솟아난다고 한다. 창조 사건에서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목상할 수 있는 의지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의지 안에서 악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노예 의지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지는 죄의 나라로 간 것이다.

### 3) 노예 의지에 대한 반론에 대한 John Calvin의 견해

노예의지를 반론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

66) Ibid,1,1559, P393

67) Ibid,1,1559, P451

Philip C, Holtro[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일산(2003)P110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강제 때문에 짓지 않고 우리 자신의 비뚤어지고 악한 의가 죄를 지을 때는 강제 때문에 짓지 않고 우리 자신의 비뚤어지고 악한 의지에 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짓는다.”

68) Ibid,일산(2003)P123

해서 그리고 특히 보통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행위 즉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한 사람들을 볼 때 John Calvin 말을 하고 있는 노예 의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John Calvin 은 총이라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를 그들에게 설명 한다. John Calvin 먼저 윤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의 삶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죽기 전에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 즉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노예의지의 반론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인간의 본성 부패한 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은총은 하나님이 본성을 정결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다만 “내면적으로 죄악을 억제하는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69)</sup> 이러한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 특히 자유의지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목상하는 선 다시 말해 창세 사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자유의지가 추구하던 것이 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지의 두 번째 문제는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영웅적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이다. John Calvin 이 문제를 더욱 자세히 풀어보고자 1.Samul 10:16절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온다. John Calvin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러한 행동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을 한다.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이러한 행동에다 야망을 밀린다면 그의 이러한 덕성이 오염시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심령이 부패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열의가 없기 때문이다."<sup>70)</sup> 이러한 생각들 John Calvin을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항상 자신의 욕구대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의 사람들이기에 비록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John Calvin의 견해에 대해서 Augustine도 동일한 말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선한 임무를 최악의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다. 선을 이루고자 하는 순전한 열심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야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혹은 기타 부패한 동기에서 악행을 억제하기 때문이다.”<sup>71)</sup>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며 창조 사건에서 아담이 받은 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69) John Calvin.[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 1559,] 서울(2006)P427 “하나님께서 섭리로 쾌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모든 덕행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70) Ibid,2,1559, P429

71) Ibid,3,1559, P302



Erasmus가 의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내용 중 '상벌'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들은 성경에서 상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에서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을 장려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상벌에 대해서 John Calvin 먼저 상보다 벌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의 생각을 자세히 나타낼 수 있다. John Calvin은 사람은 마땅히 벌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경하다고 나는 대답한다. 우리가 자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유로운 판단 아래서 죄를 짓거나 노예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 특히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sup>72)</sup> 결국 John Calvin의 사상은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Augustin의 글을 인용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sup>73)</sup> 이러한 Augustin의 글을 통해서 John Calvin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는 공로를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아무 공로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죄는 우리의 것이지만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며 상을 주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사에 상을 주시게 될 것이다. ~ 은총이 공로에서 생기지 않고 공로가 은총에서 생긴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조금 뒤에 결론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산출하려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저 주신다."<sup>74)</sup> 이러한 Augustin의 글을 인용한 것은 John Calvin 자신의 의의 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데 그가 정리한 상은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 그것에 상을 주신다."<sup>75)</sup>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 없는 한 노예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네 번째로 만나는 문제의 내용은 "충고의 의미"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Erasmus가 말한 것을 가지고 calvin의 견해를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Erasmus는 Ezekiel 11:19~20을<sup>76)</sup> 가지고 자유의지를 설명한다. 그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John Calvin 이 말씀을 선포한 선

72) Ibid,2,1559, P462

73) Ibid,2,1559, P462

74) Ibid,2,1559, P463

75) Ibid,2,1559, p464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 그것에 상을 주신다."

76) Ezekiel 11:19~20절을 -"Do I take any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declares the Sovereign LORD. Rather, am I not pleased when they turn from their ways and live"

지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먼저 한다. “선지자는 예정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절망에서 다시 불러내어 용서의 희망을 깨닫고 회개하여 자기들에게 제공된 구원을 받아들여도록 한다.”<sup>77)</sup> 그러나 John Calvin은 회개라는 단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 구절에서 선지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sup>78)</sup> 결국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덧붙여 Ezekiel 11:19<sup>79)</sup> John Calvin은 이 부분에서 자신 즉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중생 후 그들이 신앙을 추구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신다.”<sup>80)</sup> 그러나 성경에서 자연인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충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불경건한 사람의 양심의 증언으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심판 때에는 그들에게 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다.”<sup>81)</sup>

다섯 번째 논거는 필연적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 죄는 피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이 말은 Pelagius가 Augustin에게 주로 사용한 단어이다. John Calvin은 이 문제를 다룰 때 죄의 근원부터 다루고자 한다.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 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성 부패에서 왔다는 것이다. 악인들이 서슴지 않고 구실로 삼는 저 무능은 아담이 자기를 악마의 전제하의 기꺼이 넘겨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를 결박한 죄사슬은 처음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를 배반한데서 생겼다.”<sup>82)</sup>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였기에 사람은 필연성 이유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은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다.”<sup>83)</sup>

또 하나의 반론으로는 선악 구별에 대한 반론이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하기 쉬운 상태에 비려두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ohn Calvin은 이 문제를 건인이라는 것으로 푼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어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출발점에서 넘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참으로 건인 자체도 하나

77) John Calvin [Commetary on Ezekiel 11:19~20]

78) John Calvin [Commetary on Ezekiel 11:19~20]

79) Ezekiel 11:19 "I will give them an undivided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them; I will remove from them their heart of stone and give them a heart of flesh. Then they will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keep my laws.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80) John Calvin [Commetary on Ezekiel 11:19]

81)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2. 1559.] 서울(2006)P468

82) Ibid, 2, 1559, P461

83) Ibid, 2, 1559, P461

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이러한 견인은 그가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다. ~ 주께서 견인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며 자기의 권능으로 힘을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조절의 본보기가 되도록 자기의 권능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sup>84)</sup> 이러한 John Calvin의 반론 안에는 그의 철저한 예정론이 흐르고 있다. 오직 주님의 주신 은총만이 선한 일에 원인과 이것과 대조하여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다.

### 3.구속사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의지

G, W, H Hegel 의하면 역사를 주재하는 원리인 절대 정신은 전 우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의 역사도 우주적 실재의 한 영역인 절대 정신의 그러한 행로를 피할 수 없다. 즉 역사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절대 정신이 숨어 있어 이것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역사를 기획, 재배, 통제해 나간다. 물론 제한된 시대에 살고 있는 유한인간들은 절대 정신의 그러한 목적, 의도, 기획 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절대자는 신적 의지가 목표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절대정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전개하여 자신의 목적을 관찰시켜 나간다. 함은 그것이 무대의 뒤편에서 개개인의 의지와 정열의 도구로 하여 자신의 목적을 관찰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절대 정신은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의지와 정열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성의 간자란 절대 정신이 역사 속의 개개인을 상대로 쓰고 있는 이러한 간교한 속임수를 뜻한다.<sup>85)</sup>

이에 대해 John Calvin은 두 가지의 입장에서 말한다. G, W, F Hegel처럼 절대자의 의한 역사의 흐름을 서술한다. “그가 이미 정해 놓은 자연의 질서를 일반적인 충동으로 계속 운행시키시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정하시시기 때문이다.”<sup>86)</sup>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것이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를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지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요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노력도 우리의 것이다.”<sup>87)</sup> John Calvin은 G, W, H 하나님의 작정과 진행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입장은 John Calvin은 역사적 측면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부분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충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고 자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또는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기를 힘쓸 것이다. ~ 이 경건한 사람이 태만하거나 경솔하여 무엇인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역시 그 책임을 자신에게

84) Ibid,2,1559, P464

85) 이정화와2명[철학의 이해],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2005)P311

8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1,1559,] 서울(2006)P309

87) Ibid,2,1559, P484

돌릴 것이다.”<sup>88)</sup>

John Calvin은 G, W, H Hegel처럼 제2원인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주장한다. 자 그러면 John Calvin의 사상 안에서 인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순간에서 과연 그는 선택할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내가 바로 앞 항목에서 인간의 의지가 죄에 대한 노예로 묶인 것을 연구했다. 그 항목의 결론은 인류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 밖에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악만 선택하는가? 그러나 John Calvin의 말 속에 의미를 본다면 분명 인류의 의지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변화 되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부분에서 의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어 그 의지가 변화를 가졌는가?

## 1) 믿음에 의한 중생

### (1) John Calvin이 바라본 중생과 자유의지의 관계

현재 신학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신자 전체 삶에 야기되는 모든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다. 즉 중생 안에 회심과 성화하고 있지 않다. 서로 각자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John Calvin은 이 말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는 인간 갱신의 전 과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sup>89)</sup> 또한 [강요3권 최종판] 순서에 보면 제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라는 제목과 중생의 반론 속에 성화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그의 사상 안에 중생은 성도의 전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sup>90)</sup>

John Calvin은 회개를 정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내린다. “회개(중생)와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sup>91)</sup> 여기서 그가 말하는 ‘믿음으로 받는 다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인해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하여 하나

88) Ibid,2,1559. P338

89) Louis Berkof[Systematic Theology]이상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 (1996)P715

90)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1559.] 서울(2006)P81

“경박한 생각으로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나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

91) Ibid,3,1559, P78

님의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sup>92)</sup>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sup>93)</sup>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중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John Calvin은 중생(회개)안에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죽임(Mortification)과 다른 하나는 살림의(Vivification)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 살림과 죽임을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sup>94)</sup> 중생은 죄에 대한 의지에서 우리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며 외면적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변모할 것을 요구한다. 영혼은 그 옛 성질을 버려야만 비로소 갱신과 조화되는 행위를 낳을 수 있다.”<sup>95)</sup> 새롭게 탄생된 인류는 전에 죄에 대한 노예인 상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중생에서 나오는 것이니”<sup>96)</sup> 이제 중생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악에 대해 필연적 피조물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나 중생의 은총으로 받은 피조물은 창조에 받은 아담의 의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록 아담은 가변적인 측면이 있지만 죄에 대해 지배력을 없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에게에는 아직도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sup>97)</sup>

John Calvin은 중생의 의미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신자의 참여로부터 일어나며 다른 한편은 그 그분의 부활로부터 비롯된다.<sup>98)</sup> John Calvin은 [강요3,1559]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진정으로 참여하면 우리 옛 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멀어져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성이 더 이상 활

92) Ibid,2,1559, P352

93) Ibid,3,1559. P507

94) Ibid,3,1559, P81

95) Ibid,2,1559, P85

96) Ibid,1,1559, P312

Miliard Erickson[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서울 (2001)P 514~555

“ 신자들이 예수님의 영접할 때 그들 각자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97)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98) Francios Wendel[Calvin: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김재성,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1999)P290

개를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새로운 생명 속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그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의 일그러지고 거의 지워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는 것이다.”<sup>99)</sup> 이러한 회복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의 회복인 것이다.”<sup>100)</sup>

## (2) John Calvin의 중생에 대한 반론

John Calvin의 중생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대립의 각을 세운 곳은 종교개혁 시기에 열광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완전론을 가르친다.” 이에 John Calvin은 말한다. “죄는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그것이 신자들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하나님 자녀 안에서 다소 흔적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sup>101)</sup> Augustin도 John Calvin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이 죄의 법은 영적 중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자 안에 죄가 육체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신자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죄에 대한 노예에 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에 대해 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흔적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기력을 의식하게 하여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흔적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전연 없는 것 같이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sup>102)</sup> 신자 안에 비록 부패성 때문에 온전히 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도 원하지만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죄의 간재는 노예의지 상태에서 죄책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John Calvin은 완전론을 이야기를 하는 열광주의들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그들은 중생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음란과 정절 진실함과 간교함 진리와 거짓 공평과 횡포 사이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셔서 의와 불의를 올바르게 분별하

99)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1559,] 서울(2006)P88

100) John Calvin [Commetary on Romans 5:18]

101)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1559,] 서울(2006)P91

102) Ibid,3,1559, P91

시는 분이시다. 합당한 일과 합당치 못한 일을 분별하셔서 사람에게 정도와 절제를 지키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다.”<sup>103)</sup> John Calvin은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성령은 거룩케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감옥 매여 온갖 악행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104)</sup>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쓰고 있는 동안 많은 죄와 무기력에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생에서 완전할 수 없다. 신자가 비록 중생을 하여도 그 안에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꾀며 자극한다.”<sup>105)</sup> 그러므로 그자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하여도 이생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John Calvin은 신자들에게 당부한다.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며 죄 속에 얽혀 있으나 매일 죄와 싸워야 한다.”<sup>106)</sup> 그러므로 John Calvin에게 있어 완전론적 중생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일평생동안 중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구속사역에서 중생으로 회복된 의는 무엇인가? John Calvin이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 선을 이야기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John Calvin은 이러한 선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 더욱 선에 전력을 다할 수 없다.”<sup>107)</sup> 원래 하나님은 창조시에 “우리 마음에 선에 대한 열의와 영생에 대한 명상을 넣어 주셨다.”<sup>108)</sup>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여야 한다.<sup>109)</sup> “이는 우리의 처음 상태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생을 명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sup>110)</sup> 하나님을 사모하고 명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본서의 유전적 타락과

103) Ibid,3,1559, P96

104) Ibid,3,1559, P96

105) Ibid,3,1559, P90

106) Ibid,3,1559, P96

107) Ibid,2,1559, P430

108) Ibid,2,1559, P364

109)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문1

110)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1559,] 서울(2006)P366

부패인 것 같으며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 우리의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sup>111)</sup>

잃어버린 선 추구의 하기 위해서 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중생에 의해서 아담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sup>112)</sup>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악들과 싸워야 하며 본성적인 기질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싸움으로 인간 안의 죄의 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성결로 이행하는 실제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택하신 자들에게 향한 명령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회개를 목표로 노력하며, 일생을 통해서 회개의 몸을 바치며, 끝까지 회개를 추구해야 한다. ~ 욕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하여, 드디어 욕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는 것이다.”<sup>113)</sup>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sup>114)</sup>

## 2) 믿음과 칭의의 관계

John Calvin은 자신의 1 Corinthians 15:22<sup>115)</sup> 주석에서 Paul이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조한 이유를 설명한다. “바울은 대조를 통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 뭔가 생리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대가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그 자신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

111) Ibid,2,1559, P366

112) Ibid,2,1559, P375

113)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2,1559,] 서울(2006) P105

114) Ibid,3,1559, P201

115) 1 Corinthians 15:22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함께 죽게 한 것과 같이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주님은 아담 안에서 멸망당하였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 죽음의 원인이 아담에게 있으며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은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직무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sup>116)</sup> 이러한 구조는 Roman5장에도 동일하게 나온다. 그는 Roman5장의 구저의 이유를 또한 그의 주석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아담과 그리스도 간에 어떤 유사점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나 어떤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sup>117)</sup>

그는 주석에서 바울이 이러한 구조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은혜가 범죄와 반대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리고 은혜로부터 나오는 선물은 사망과 반대가 된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 또는 그의 공로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주셨는데 ~ 그 선물은 우리에게 임한 이 긍휼의 열매이다. 즉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은 화목이다. 그것은 또한 의요 새 생명이다.”<sup>118)</sup> 인류는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불법을 미워하시므로 죄인이 죄인인 동안은 그리고 죄인으로 인정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나타난다.”<sup>119)</sup> 그러나 이러한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거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위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만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인 죄를 짓는 죄에 대한 노예이기 때문이다.”<sup>120)</sup> 이러한 절망상태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탈출구를 주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는 신앙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21)</sup>

116) John Calvin [Commetary on 1, Corinthians 15:22]

117) Ibid. Romans,5:15

118) Ibid. Romans 5:15

119)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1559,] 서울(2006) P247

120) Ibid,3,1559, P248

이러한 칭의를 받기 위한 방법에서 어느 무리들은 그리스도 자체가 필요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믿음 자체에는 의롭다 할 힘이 없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항변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John Calvin은 이러한 자들의 견해에 반대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 함을 받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경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을 일종의 그릇에 비교한다. 빈 영혼 즉 입을 벌린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sup>122)</sup>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위에서 본 것 같이 먼저 선행하는 것은 죄의 사함이다. 그 죄 사함 다음에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다. 전에는 죄에 대해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선언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식을 볼 때 칭의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건이다.

Osiander와 같은 경우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가 의가 된다고 하지만 John Calvin은 그리스도의 신성 보다는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일을 그의 인성에 따라서 수행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고 물으면, 바울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종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복종하였겠는가?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의 육신에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리겠다.”<sup>123)</sup> 즉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John Calvin이 생각하기에 그의 신성 보다는 인성 쪽에 이것이 더욱 더 어우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신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을 취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이름으로 범법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죄인 취급을 받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다”<sup>124)</sup> “이제 주님의 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다.”<sup>125)</sup>

121) Ibid,3,1559

122) Ibid,3,1559, P256

123) Ibid,3,1559, P259

124) John Calvin [Commetary on 2, Corinthians 5:21]

125) Ibid, Romans 15:22

John Calvin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칭의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Osiander는 신성만이 우리의 칭의 근거라고 말을 한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약속한 예레미야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신적본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John Calvin은 그를 이사야 53장10절의 해석하므로 해서 반론한다.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 것은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진’ 때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스스로 아버지에게 복종하셨기 때문이다.”<sup>126)</sup>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인성과 신성이 필요한 이유를 안다. 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의 속죄론에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sup>127)</sup> 그런데 John Calvin은 지금까지 칭의의 근본인 속죄 사역을 말하면서 인성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신성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John Calvin은 신성의 역할을 설명한다. “주님의 삶은 그의 신성 안에 본래부터 거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sup>128)</sup> 즉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룬 구속사역을 신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는 그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John Calvin이 생각한 칭의에 연구를 하였다. 이 칭의의 부분에서 내가 배운 것은 우리에게 주신 칭의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위에서 의지의 회복의 시작인 중생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이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배웠는데 이칭의 또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 3)칭의와 중생과의 관계

칭의와 중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John Wesley는 둘 관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칭의는 출생의 의미로 보고 있으며 성화는 성장의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129)</sup> Osiander와 같은 경우 칭의와 중생의 관계에서 칭의를 무시하고 중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12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1559,] 서울(2006) P258

John Calvin [Commetary on 1, Corinthians 1:30] -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하였다.

127) Louis Berkof [systematic theology] 일산(2004)P548

128) John Calvin [Commetary on John 6:48]

129) John Wesley, Sermons : ‘the new Brith’ 참고

주입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칭의 개념은 사라지고 중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John Calvin이 생각하는 중생과 칭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John Calvin이 지금까지 설명을 한 칭의와 중생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개념을 볼 때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John Calvin은 두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다. John Calvin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비롯되는 두 은혜를 통합하는 때의 존재와 본성에 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stio in Christum) 그리스도 연합 속에서 혹은 교계 가운데 있음을 보여 주었다.<sup>130)</sup>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1:30절 구절을 통해 그의 주장을 이야기 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sup>131)</sup> “그러나 이 구절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마찬가지로 중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sup>132)</sup> 이처럼 John Calvin은 두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로 은혜로 보았다.<sup>133)</sup> 이 두 개의 의의 개념이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인 것은 칭의와 중생이 모두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나게 찢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것들을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것들을 함께 결합된 상태로 받기 때문이요 그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의로움과 성화이다.”<sup>134)</sup> 이 두 개의 은혜의 성격을 구분하여 설명을 한다면 칭의는 은혜언약에서 성화에 선행하며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sup>135)</sup>

130) Francios Wendel[Calvin: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일산(1999)P308~309

131)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1559,] 서울(2006) P339

132) John Calvin [Cometary on 1. Corinthians 1:30]

133) Francios Wendel[Calvin: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일산(1999)P310

134)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3,1559,] 서울(2006) P254

Francios Wendel[Calvin: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일산(1999)P310 -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모든 은혜는 그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35) Louis Berkof[Systematic theology] 일산(2004)P788

#### 4.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결정론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에서 생긴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세운 사람은 Leuippos와 Democritos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 당시에 주류 철학은 아니었다. 이 견해가 철학사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은 Henri D`Holbach이다. 그들은 '물리적 세계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인간의 뇌수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뇌수는 본성상 달과 별이나 똑같이 물질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뇌수는 사유는 그러한 사유에 선행하는 뇌수의 상태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sup>136)</sup> 이러한 견해에 또 다른 학문에서 발전을 하는데 바로 사회 생물학이다.(Sociobiology)<sup>137)</sup> 이 생물학에서는 결정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지만 학습능력 자체에는 진화의 결과 얻어진 유전적 기초가 있으며 어떠한 문화를 형성하기 쉬운가의 결정에는 자연 도태에 과정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sup>138)</sup> 이에 대해 비 결정론자들은 단순히 결정이 거짓이라는 견해이다. 비 결정론자는 어떤 사건도 원인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단지 모든 사건이 원인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곧 원인 없는 사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만이다. - 원인 없는 사건이란 필연적 사건이 아닌 사건 선행하는 사건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지 않는 사건일 것이다.<sup>139)</sup> 비결정론 가운데 대표적인 학파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인간만이 실존의 본질에 의해서 자기의 본질을 스스로 형성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실존의 본질을 이루는 초월은 신에의 수직적 초월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적 세계에의 초월을 뜻한다.” 사회 생물학은 의지를 유전자 결정론으로 보고 있다. “인간이 행동들은 그 사회의 학습에 의해 되었지만 학습자체에는 진화의 결과 얻어진 유전적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이 존재하지 않

136) Donald Paler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철학 가볍게 하기]이용대, 현실과 과학 서울(2004) P224

137) 네이버 백과사전 -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사회적 행동에 관해서 이것이 자연 도태를 주요인으로 하는 진화과정의 결과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여기에 행동학과 생리학 등 관련분야의 식견을 더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138) 이정호외2명 [철학의 이해].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서울(2005)P

139) Donald Paler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철학 가볍게 하기]서울(2004)P236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비 결정론자들이다. 이 보다 더 많은 학파들이 있지만 철학 안에서도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견해를 두 가지 종류로 보고 있다. 결정론과 비결정론으로 보는 것이다. 결정론을 정리하면 인간의 자유를 배제한다. 사건들이 우주적인 목적이나 계획 혹은 의지에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해 비 결정론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조건들이 다 갖추면 그 사건은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는 기독교 안에서도 동일한 견해들이 있다. 단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역사적으로 볼 때 Augustin과 Pelagius 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 Luther와 Erasmus와의 논쟁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부분이다. 그럼 John Calvin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과연 John Calvin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Higher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직 그의 로봇으로 보는 견해들을 안다. 또한 18세기 서양 철학에서는 지나친 이성을 찬양하고 그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오히려 무신론이 날개를 단 것을 안다.

## 1)작정과 진행에서 인간의 자유의지<sup>140)</sup>

John 6:44~45 구절에서 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sup>141)</sup>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우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예배시켜 주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은 따를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결과이다.<sup>142)</sup>” 또한 John 17:2

140) 우리는 보통 작정과 진행 즉 창조 섭리를 따로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구속의 사역이든 구속사이든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한 가지 전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작정으로 인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분의 제목을 정할 때 작정과 진행을 하나로 묶어 진행을 하고자 한다.

141) John 6:44~45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Everyone who listens to the Father and learns from him comes to me."

142) John Calvin [Commetary on John 6:45]

에<sup>143)</sup> 대해서 그는 “ 이 은혜를 주어진 자들에게 국한하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아버지께서 버림받은 자들 또한 그에게 굴복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 국한하고 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그의 자신의 양 무리에 속하며 그는 이들의 목자로서 지켜 주신다고 대답하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만민에게 미치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에 가까이 순종하며 따르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억지로 하고야 마실 것이다.<sup>144)</sup>” 이러한 견해에 대한 그의 사상은 [강요 3, 1559] 24장 3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음을 알 수 없으며 자발적인 의지로 구원에 대해서 함구하게 한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단독 결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sup>145)</sup> “그가 이미 정해 놓은 자연의 질서를 일반적인 충동으로 계속 운행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정하시기 때문이다.”<sup>146)</sup> 하나님은 자신 뜻 안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푸신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Augustin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물의 필연적이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 회복 또한 필연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이 형상의 회복된 의지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John Calvin의 말이 인간을 마치 운명론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 John Calvin은 Augustin의 글을 인용한다.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시정 아니 말소 하신다. 두 번째는 주께서 친히 주님께로부터 난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와 바꿔 주신다. 은총이 의지를 앞지른다는 의미에서 나는 사람의 의지를 ‘수종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sup>147)</sup>”

John Calvin의 이러한 말의 의미는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

143) John 7:2 "But when the Jewish Feast of Tabernacles was near"

144) John Calvin [Cometary on John 17:2]

14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 1559]서울(2006)P303

146) Ibid,3,1559,P309

147) Ibid,1,1559,P436

이라는 것이며 이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는 전환되는 것이다. 이 견해를 위해 John Calvin은 John6:4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의 증거를 된다. “사람의 선택의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행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문자가 아닌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결과로 사람은 배운 것을 압으로써 깨달을 뿐만 아니라, 원함으로써 구하며 행함으로써 얻는다.”<sup>148)</sup> 그러므로 John Calvin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의지가 선한 의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의지 전환 안에서 소원을 두시므로 우리의 의지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은총이다.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져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충심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은총을 입은 택하신 신자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시며 ~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중생에 의해서 아담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sup>149)</sup> 그러나 이 은총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다.

John Calvin의 자유의지의 기본 사상은 예정론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 칭의 중생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의 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믿음이라는 도구가 사용되는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생을 소유하였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2)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 (1)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인가?

David Hume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는 악을 방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력하신 것이다. 그가 능력이 있으시며 의지도 있으신가? 그렇다면 악은 어

---

148) Ibid,2,1559,P437

149) Ibid,3,1559,P88-89



디에서 오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악에 대한 방지는 그분의 거룩한 속성에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능력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악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John Feinberg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여러 문제를 서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과 씨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Thomas Aquinau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또 완벽하게 해결 지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만일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말 짓지 못한다고 하여 과도하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sup>150)</sup>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John Calvin의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 우리가 이미 창조 사건에서 본 것 같이 John Calvin은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는 이 항목에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의 지성, 이성, 분별, 판단 등이 이 땅의 삶의 방향을 위해 충족했음을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에까지 올라가기까지 했던 것이다. ~ 의지가 이성의 지도를 전적으로 따르도록 되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순전한 상태에서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써 영생에 도달할 능력이 있었다.” “아담으로서는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초래하였을 정도로 아주 많은 힘을 받았던 것이다.”<sup>151)</sup>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내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결국 타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인내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 Herman Bavink의 하나님의 형상의 한계성을 통해 John Calvin이 말한 인내를 설명하였다.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황구적인 인내성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sup>152)</sup> 이것을 가지고 완전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John Calvin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으로 돌리고 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금지를 하였지만 John Calvin이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결국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150)Miliard Erickson [The Doctrine of GOD] 김광열 ,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 (1995)P281~283

151)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 1559]서울(2006)P302~304

152) Ibid,1,1559,P302

John Calvin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마니교들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단이 하늘의 뜻에 대적하여 인간에게 함정을 놓았고 또한 이 사단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였다고 가공할 만한 오류가 빠져 버린다. 그러나 John Calvin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하여 경건하고 신실한 생각하는 모두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그 악마도 절대로 활동할 수 없다.”<sup>153)</sup> 반박한다. 실제로 성경 읊기에서도 마귀는 읊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읊에게 고난을 가한다. 그러므로 마니교에서 말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마귀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로 올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John Calvin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죄의 타락의 창시자로 볼 수 있다. [강요,3,1559] 23장 7번에 이러한 제목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것도 예정하셨다.” [강요,1,1559]와 맞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예정하셨다는 말은 서로 맞지 아니한 말이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즉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가 생각한 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라고 생각해야 한다.”<sup>154)</sup> “사람을 강박하게 만드는 것도 그의 손과 그의 뜻에 있다는 것이다.”<sup>155)</sup>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눈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으로 다른 생명체와 회의를 가지지 않고도 그분 스스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손상을 입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물의 필연성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필연코 발생하는데 이는 그가 예견하신 일들이 참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서슴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다.”<sup>156)</sup>

---

153) John Calvin [Commentary on Genesis3:6] “하나님의 권능에 경건하고 신실한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그 악마도 절대로 활동할 수 없다.”

15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 1559]서울(2006)P538

155) Ibid,3,1559,P560

156) Ibid,3,1559,P547

John Calvin은 [강요] 두 가지의 말을 한다. 하나는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어찌 보면 John Calvin은 David Hume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모순을 준다. 그러나 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비참한 상태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나는 물론 인정한다. 또 우리는 결국 항상 하나님의 뜻의 단독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 결정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말했다. ~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들은 그러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변호되지 않으며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궤변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시는 일을 어떤 법으로 판단하려 하며 그 이유를 이해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비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미한 짓인가를 가르친다.<sup>157)</sup> John Calvin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담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임을 말하는 가운데 상충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으로 더 이상 호기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다만 그는 이러한 문제를 인간의 눈으로 풀기를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2)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강요.1,1559]를 보면 이러한 말이 있다. “선이어건 악이어건 인간에 관한 그 계획, 의지, 노력, 능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며 또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제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알게 될 것이다.”<sup>158)</sup>“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아 볼 수 있다.”<sup>159)</sup> “그가 이미 정해 놓은 자연의 질서를 일반적인 충동으로

157) Ibid,3,1559,P540~541

158) Ibid,1,1559,P353

159) Ibid,2,1559,P437

계속 운행시키시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정하시기 때문이다.”<sup>160)</sup> 그러나 John Calvin은 다른 곳에서는 의지에 의한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요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노력도 우리의 것이다. ~ 그는 충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고 자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기를 힘쓸 것이다. ~ 이 경건한 사람이 태만하거나 경솔하여 무엇인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역시 그 책임을 돌릴 것이다.”<sup>161)</sup>여기에서도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가 매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 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준다.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sup>162)</sup>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여 모든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항상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즉 하나님께서 삶의 한계를 정해 주셨으며 동시에 그것을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다.”<sup>163)</sup>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Higher처럼 자신의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건이 원인이지만 인간이 행할 책임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책임을 장려한 것이다. 그러나 John Wesley는 John Calvin의 예정론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사라지고 결국 율법폐지론으로 간다는 그의 견해는 John Calvin이 말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John Calvin은 John Wesley가 말한

2 Samuel 17:14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said, “The advice of Hushai the Arkite is better than that of Ahithophel.” For the LORD had determined to frustrate the good advice of Ahithophel in order to bring disaster on Absalom”

Joshua 2:9 “and said to them,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this land to you and that a great fear of you has fallen on us, so that all who live in this country are melting in fear because of you”

16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서울(2006)P309

161) Ibid,1,1559,P338

162) Ibid,1,1559,P318

163) Ibid,1,1559,P330

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즉 경건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다. 이 경건 안에 먼저 은총이 선행된다. 정리하면 은총이라는 단어는 의지의 모든 것을 담은 항아리이고 그 항아리에서 주님이 주신 의지를 하는 것으로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John Calvin은 1원인을 가장 중요시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2원인을 무시하지 않았다.<sup>164)</sup>

#### IV. 결론

이 모든 연구를 마치면서 John Calvin의 자유의지에 대한 입장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어는 것 하나 선할 행실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인간은 죄악에 대해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 통하여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John Calvin의 예정론 안에 있는 사상이다. 오직 택하신바 된 사람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의 이 견해는 Pelagius와 Erasmus의 견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만 그 은총은 완전한 은총이 될 수 없기 때문

---

164) 제2스위스 신앙고백 6장 하나님의 섭리 -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다스려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거나 조심해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솔한 언동을 인정할 수 없다.”

Weyne A, Grudem [systematic theology] 노진준, 은성, 서울(1997) P489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물을 때에 우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떠난다든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한 성경구절은 하나도 없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 우리는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선택은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약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져 우리의 선택은 어쨌든 상관이 없다든지 우리가 실제로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구원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John Calvin은 구원의 참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므로 '수종자'로 표현한다. 그의 이 견해는 Augustín과 Luther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현실을 무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현 시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 안에 있는 Higher와 논쟁에서 그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런던 집회에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는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에 대한 증명을 위해 인도로 스스로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이 예화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안에서 주관하지만 또한 인간도 그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John Calvin이 말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진행되어가지만 인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번역서]

-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 (1991)
- Donald Paler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철학 가볍게 하기] 이용대, 현실과 과학 서울 (2004)
- Francios Wendel [Calvin: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 (1999)
- Henry Chadwick [초대 교회사] 서영일,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 (1983)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1559] 한철하, 생명의 말씀사, 서울 (2006)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1559] 한철하, 생명의 말씀사, 서울 (2006)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 1559] 한철하, 생명의 말씀사, 서울 (2006)
- Luther [탁상담화 - 자유의지] 이길상,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 (2005)
- Louis Berkof [systematic theology] 이상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 (1996)
- Miliard Erickson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나용화의 1명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 (2001)
- Miliard Erickson [The Doctrine of GOD] 김광열,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 (1995)
- Miliard Erickson [The Doctrine of Salvation] 김광열, 기독교 문서선교회 서울 (1992)
-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7] 박종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 (2004)
- Philip C. Holtro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일산 (2003)
- William Amen [신학의 정수] 서원모,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일산 (2000)
- Wayne A. Grudem [systematic theology] 노진준, 은성, 서울 (1997)

## [국내 저서]

- 오덕교 [종교 개혁사]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수원 (2006)
- 이형기 [종교 개혁사상] 장로교 출판부, 서울 (1997)
- 이정화 외 2명 [철학의 이해],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5)
- 신복윤 [John Calvin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서울 (1994)
- 박해경 [기독교 교리 신학사] 이래서원, 서울 (2000)

[주석]

John Calvin [Commetary on Colossians]  
John Calvin [Commetary on John]  
John Calvin [Commetary on 2, Corinthians]  
John Calvin [Commetary on 1, Corinthians]  
John Calvin [Commetary on Romans]  
John Calvin [Commetary on Genesis]  
John Calvin [Commetary on Matthew]  
John Calvin [Commetary on Ezekiel]